

금감원 지방이전은 시장과 떼어놓는 것



이 정 혁

西村브리핑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년째 외부에 자신들의 근황을 설명해주느라 바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분리와 지방 이전론이 잇따라 금감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놴다. 당사자인 금감원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집단 반발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 모두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반대하면서 개편안은 진통 끝에 3개월여만인 9월에 철회됐다.

이번에는 지방 이전 문제가 금감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구체적인 대상-지역 결정은 10~11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상이 걸렸다. 그야말로 금감원으로서 2년째 정부가 두는 장기판의 ‘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꼴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서울에 사람과 기업, 일자리가 과

도하게 몰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의 주소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것이 곧 균형 발전이라는 접근 방식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금융시장이라는 현장에서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해 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금융 안전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다.

먼저 고려할 부분은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이 감독 대상을 찾아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역출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관제탑이 공항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도 문제다. 올해 금감원이 계획한 검사는 707회, 투입 연인원은 2만8229명이다. 지금의 검사 규모를 유지하려면 출장비와 숙박비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 금감원 예산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 대응력이다. 금융은 사고가 터진 뒤 대책회의 날짜를 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시장이 급변하면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금융회사들이 밤과

새벽, 주말을 가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금융에서 물리적 거리는 때로 의사 결정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손실의 크기와 직결된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금융선진국이 오랜 기간 공공부분 일자리를 수도 밖으로 분산하면서도 핵심 금융감독기관을 런던, 파리, 도쿄에 두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변수다. 금감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계리사, IT 인력 등 전문 인력 비중이 7월 말 기준 전체 임직원 2479명 중 1050명에 달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면 이들 전문직의 상당수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작동해야 한다. 조직을 쪼개든 옮기든 기준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 금융시장의 안정이어야 한다. 지역 거점을 강화하고 일부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관제탑을 시장에서 떼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감원의 간판과 주소, 수장의 색깔을 정권마다 바꾸려 든다면 흔들리는 것은 금감원 조직 하나가 아니다. 금융시장과 감독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제발 2년째 거듭되는 시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멈추길 바란다.

/linh@metroseoul.co.kr

‘아직은 앞선다’는 안도



김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적이 빨라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공정 등 고부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의 격차에 안심하기는 어렵다.

중국 낸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330억 위안(약 6조8000억원)을 조달해 생산라인 고도화와 차세대 낸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D램에서도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이지만 HBM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CXMT가 2028년 중국 D램 수요의 약 50%, HBM 수요의 4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92%에 달했던 중국의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웨이퍼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비율이 2035년 3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중국의 성장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첨단 장비 확보와 수율 등에 한계가 있고 HBM과 고부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에서는 한국 업체와 격차가 크다. 중국 현지 업체들이 예상하는 HBM3급 제품 자급 시점도 약 2년 뒤다.

다만 기술 격차가 곧 시장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과 점유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격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규모 정책 지원과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점도 경계할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가진 우위는 분명하다. HBM과 eSSD 등 고부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격차가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의 추격을 위기로 볼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격차가 계속될 것이라 낙관하기도 어렵다.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년 앞서 있느냐보다 그 격차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hyeon@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 (음 7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60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친구에게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말을 조심하세요. 84년생 끝내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

49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1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73년생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5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로랑어

50년생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6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귀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도끼

51년생 자신을 돌아보고 분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63년생 보안을 해 나가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75년생 남의 재물을 쉽게 탐내지 마세요. 87년생 득은 없고 손실만 이따를 뿐입니다.



조

52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4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76년생 늘 조심성 있게 나아가세요. 88년생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어께를 나란히 합니다.



뱀

53년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65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77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89년생 즐거운 인생을 꿈꾸면 좋습니다.



말

54년생 리더십이 뛰어나 지도자격입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아 가세요. 78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90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양

55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7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91년생 공로를 세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68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80년생 성실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92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기분 아주 좋은 날입니다. 69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을 바꾸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93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개

5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70년생 이익이 상당합니다. 82년생 눈 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94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돼지

59년생 돌발상황에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7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험합니다. 95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법의 대응

법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학문으로서 법을 공부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법 체계의 설계는 ‘평균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람’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존중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전제가 법의 작동 기준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이런 기준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행위가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데이터 폭력의 가해자는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함박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다. 단순히 화가 난다고 또는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남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도 일어난다. 평균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가해자에게는 법도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것도 소극적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해자를 옥죄는 법이 필요하다. 폭력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신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가해자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경고하는 수준으로만 끝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힘들다. 법은 국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법의 지나친 규제가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누군가 생명을 잃은 뒤에는 법의 어떤 보호도 의미가 없다.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상식을 무시하는 가해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져야 할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3호	
일간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1	2	8	8	2	9	6
2	6	9	7	9	2	1	8	8
2	8	8	1	6	9	9	7	8
6	1	7	9	2	2	9	8	8
8	2	8	6	9	1	7	2	9
9	2	9	8	7	8	6	2	1
8	8	2	9	1	9	2	6	7
9	7	2	2	8	6	8	1	9
1	9	6	8	2	7	8	9	2

2	9	2	7	8	6	1	9	8
8	1	6	9	2	9	8	7	2
8	9	7	1	8	2	6	9	2
9	7	9	2	6	1	8	2	8
6	8	2	8	9	2	2	1	9
2	8	1	2	9	8	9	6	7
7	6	8	9	2	2	9	8	1
1	2	8	6	7	9	2	8	9
9	2	9	8	1	8	7	2	6